



| | | | |
|-----------|-------------------|----------|--------------------------|
| 코스피 | 2092.40 (0.00) | 코스닥 | 690.18 (0.00) |
| 금리 (연이자율) | 1.95 (0.00) | 환율 (1달러) | 1128.50 (-0.70) (16일) |



[금융]
DGB금융지주
은행장 선임 갈등
지주사 주주권 행사 촉각
04

2년만에 뒤집힌 결론... 결국 기업 책임이라는 금융당국 '오락가락 회계감독' 불신자초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후 7년이 지났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적극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내 증시 시가총액 4위까지 오르내렸던 한 기업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해당 기업이나 그룹집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회계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세세한 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지 않은 원칙 중심의 IFRS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의 회계잔혹사를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대한민국 회계잔혹사 ① 삼바와 감독당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지만 책임을 지는 이들이 없다. 투자자들의 가슴은 멎들어 간다. 기업은 정해진 상장절차를 모두 거쳤고, 회계처리 역시 전문가 집단은 물론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 중이다. 감독당국 역시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일 뿐 직접 나선 특별감리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KRX)는 우량기업이 해외로나

삼바, 증선위 결론에 유감 2016년 문제없다 판단 받아 8만 소액주주 민사소 준비 靑 청원계시판에 성토글도 8만 소액주주 민사소 준비 靑 청원계시판에 성토글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내 상장을 설득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상장규정까지 바꿨고 삼성바이오는 국내 주식시장에 붙잡혔다. 하지만 상장한 지 2년이 지나 분식회계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감독당국,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은 2016년 말 상장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내자 금감원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감원은 감사인과 위탁기관의 의견을 빌었다. 금감원은 "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지정감사)이 적정 의견을 표명했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진용섭 당시 금감원장 역시 지난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회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해 5월이다. 금감원은 1년여 간의 특별감리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조치사전통지 여부를 공개하고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위탁받는 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이든 소액주주들에게는 다를 바가 없다. 결과론적으로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 다른 결론이 나왔다. 소액주주들이 '바뀐 것은 정권 밖에 없다'고 성토했는 이유다.

특히 이번 분식회계는 삼성바이오가 상장되기 전인 2012~2015년 재무제표에서 벌어졌다. 상장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삼바 "금융당국이 문제없다고 했다" 당국의 입장이 180도로 바뀌다 보니 삼성바이오 역시 증선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분식회계 발표 직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증선위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6년 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 당국 발언〉 자료: 취합

| 일시 | 내용 |
|---------------|---|
| 2016년 11월 10일 |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시장 상장 |
| 2017년 1월 26일 | 참여연대 분식회계 질의에 대해 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사항 발견되지 않았다" |
| 2017년 2월 16일 |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 "상장 요건이 이익에 함몰돼 우수기업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
| 2018년 5월 01일 |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사전통지서 통보" |
| 2018년 11월 14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고의적으로 위반" |
| 2018년 11월 14일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유감이다." |

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콜업선 공시 누락 판단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8만 소액주주 "이게 나라냐" 삼성바이오의 8만 소액주주들은 길을 잃었다. 삼성바이오는 기업공개(IPO) 당시 10조원의 자금이 몰렸던 유망 투자처였다.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거치고 매년 회계감사도 '적정'이었던 곳에 투자했지만 소액

주주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여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전 금감원장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맞다고 했다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근무했던 실무자 및 총책임자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 반대로 이번 금감원장이 제대로 된 회계처리인데 잘못됐다고 제기해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번 금감원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는 물론 금융 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文대통령, APEC 정상들과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각국 정상들과 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순노무직 9.3만명 감소... 5년 새 최대폭

자영업 경기부진 직격탄 맞아 음식점 이어 미용실 등 감소세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음식 배달 등 보조업무를 하는 단순노무직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단순노무직 감소는 최근에는 미용실·예식장 등 규모가 작은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내수 위축에 더해 온라인 소비 확산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자영업 경기 부진이 심화

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2년 연속 10%를 웃돌면서 단순 노무 일자리 감소세가 음식점 서빙·배달뿐 아니라 미용 보조 등 숙련 일자리로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단순노무 종사자는 35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3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통계 분류상 '단순노무'는 건설현장의 소위 '막노동'이나 주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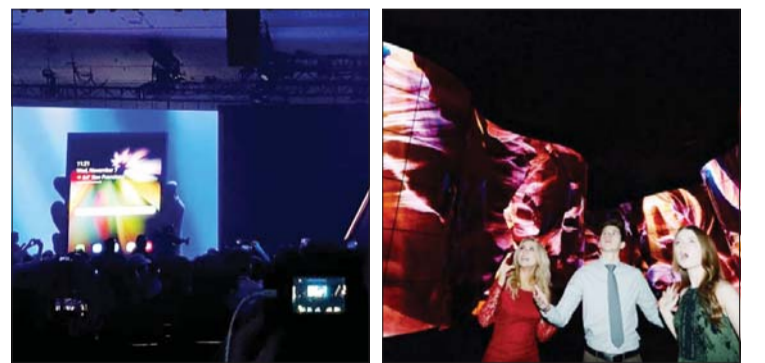
음식배달 등 보조 업무 성격의 일을 뜻한다.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올해 4월 1만9000명 줄어든 이후 7개월째 내리막이다.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8월 5만명, 9월 8만400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0만명 선에 근접했다. 단순노무 일자리 부진에는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에 더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원인이 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면에 계속)** /최신용 기자 grandtrust@

미래 가전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소형은 '삼성', 대형은 'LG'가 주도

삼성, 모바일 등 중소형 강점 LG는 TV·스크린 등 집중

OLED가 미래 표준 디스플레이로 자리잡고 있다. 얇고 형태 변화가 쉬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 등 작은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TV와 스크린 등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LG가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18일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업체 DSCC에 따르면 OLED 생산면적은 2022년까지 연평균 35%씩 늘어날 예정이다. 5년 동안 3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작은 화면, 삼성 OLED가 대세 스마트폰 OLED는 이미 대세로 자리잡은 상태다. DSCC는 2018년 OLED 생산량 중 스마트폰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을 것으로 봤다. 프리미엄 모바일들이 OLED 채택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중저가 모바일도 OLED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모바일 대부분에 OLED를 적용하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 고급형 모델에는 OLED를 사용 중이다. 중국에서도 모바일에 OLED를 탑재할 조짐이 보인다.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할 폴더블폰 공개 모습(왼쪽)과 LG전자가 지난 CES2018에서 선보인 OLED 협곡. /각사

폴더블 스마트폰은 모바일 시장 OLED 강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IHS마킷에 따르면 폴더블 OLED 출하량은 2019년 140만여대에서 2025년 5050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OLED 시장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작은 OLED는 자동차 시장에서 활약을 예고한 상태다. 시장조사 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자동차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3년까지 5억4000만달러(약 6110억원)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다. 자동차가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 등 거울을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로 대체하고 있어서다. OLED는 선명도가 높고 응답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얇고 휘어질 수 있어서 자

동차에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주도권은 삼성에 있다. 전 세계 중소형 OLED 시장 95%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있기 때문이다. 폴더블 OLED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최초로 양산하게 됐다. ◆큰 화면, LG OLED가 연다 작은 화면뿐 아니다. DSCC는 TV용 OLED 출하 면적이 2020년께 스마트폰용 OLED를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까지는 2018년보다 4배 가량 많은 면적을 출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TV 크기가 매년 10% 미만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OLED TV가 미래 TV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 높인다는 의미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